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성경말씀: 히12:1-2

원래 빌립보서 강해, 오늘도 기초 진리를 알리려고 한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지옥, 사망, 죄, 오늘은 죄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히12:1, 특별히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습관적인 죄에 대해 말하려 한다.

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자꾸 약화시키려 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비난하고 미워하시는 것: 죄

성경에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온다(단수 죄 448회, 복수 sins 172회, 다른 명사).

죄라는 단어는 창4:7에 가인과 함께 처음 나온다.

창18:20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두 번째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죄는 계18:5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언급된다.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다(마1:21). 그 뒤 30년이 지나서 요1:29

1. 죄의 정의와 의미

구약과 신약에는 약 20개 이상의 단어가 죄를 정의한다: 과녁(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 나쁜 것, 반역, 불법, 길을 잃은 것, 사악함, 방황하는 것, 불경건, 범죄, 범법, 무지, 떨어져 나가는 것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카타(chata), 하마르티아(hamartia)

구약의 '카타': 522회,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바른 과녁에서 벗어나면 다른 과녁을 맞힌다. 이 단어는 도적적인 악, 우상 숭배, '유대인들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죄들'(ceremonial sins), 출20:20; 삿20:16; 잠8:36; 19:2

신약의 '하마르티아': 227회, 역시 과녁에서 비껴나는 것(마1:21; 요1:29; 행2:38; 롬5:12; 6:1; 고전15:3; 고후5:21; 약1:15; 벰전2:22; 요일1:7; 2:2; 계1:5)

"죄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L. S. Chafer

2. 죄의 기원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 땅의 창조 이전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 그 이후로 사탄은 죄의 원천과 기력이 됨(사14:12-14; 겔28:12-18)

이 세상 죄의 기원: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죄를 땅에 가져옴. 구약에서 모세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였고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묘사하였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사실이며 현실이다.

3. 죄의 사악함

사람의 타락의 정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라는 존재가 타락함,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극도의 고난을 겪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이것을 제거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죄는 하나님 편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불신자의 심판: 영원한 지옥 불(마25:41), 이 정도로 죄는 심각한 것이다.

4. 현 시대 죄들의 원천

세상(요15:18-19): 사탄이 우두머리로 있는 이 세상 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육신: 모든 사람 속의 죄의 원리, 육신은 악한 행위들을 만들어 내며(갈5:19), 욕망과 정욕의 형태를 띤다(갈5:24; 요일2:16). 심지어 성도도 노예가 될 수 있다(롬7:25).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롬7:18). 대응책: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갈5:24). 이 땅에 사는 한 박멸 불가능, 성령님께 의지하여 걸어야 한다(갈5:16).

Desperately wicked(렘17:9), 크리스천, 비크리스천 예외가 없다.

5. 죄들의 종류: 1. 막7:20-23, 2. 롬1:28-32, 3. 갈5:19-21

6. 죄 지은 자들의 종착지: 지옥 불(마25:41)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습관적인 죄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이상의 귀한 진리, 단번 속죄, 새 상속 언약, 믿음이란 무엇인가? 초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율법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 삶이 녹록하지 않다: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사도는 11장에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 믿음의 위인들 열거, 11:38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1장을 언급한 이유(12:1),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1-2절 읽고 예수님 완주 설명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로 경주하는 것이다(1). 이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

1. 무거운 것 제거, 2. 너무 쉬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제거

1. 무거운 것 제거

사도 바울의 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바로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 스타디움에는 선수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근육 강화를 위해 다리에 추를 달고 맹연습, 이제 경기장, 그래서 추를 내버려야 한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버려야 한다. 땀을 내기 위해 트레이닝 긴 바지, 다 벗어버려야 한다.

운동화, 반바지만, 최대한 몸을 줄여야 한다. 야구 선수들 배트에 무게를 걸어 연습

성도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인한 달리기 선수: 달리기를 막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나는 교수, 목사, 성경 출간, 내게도 하루는 24시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것 제거(감투 등).

무거운 것: 경주를 위해 불필요한 것,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등산, 여행, 야구 경기 등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면 다 버려야 한다.

좋은 코치: 1. 다른 사람들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고 격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1).

왜 구약을 읽는가?(롬15:4), 시편과 잠언만 읽으면 안 된다. 다 읽어야 한다.

2.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습관적인 죄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 사람마다 다 다르다.

4명의 목사들 이야기: 1. 사무실에 갔다가 심방 간다고 하고는 야구장, 경마장, 2. 화가 나면 몰래 술을 먹는다. 3.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스 사람 생각하면서 샌드백을 친다. 4. 남 이야기(가십) 무엇이 습관적인 죄인가? 창20:1-18, 아브라함이 남쪽 지방에 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듣고 데려가려 함, 아브라함의 말(20:2), '사라는 내 누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창12장 11-20,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도 동일한 말, '내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 이집트 사건 이후로 아마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동일한 거짓말, 창18장에서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나 대화함, 그는 오래전에 구원받음, 주님과 교제함, 그럼에도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지음,

그런데 이 죄는 아들에게도 전달됨,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창26장 6-10, 여기서 이삭도 동일한 죄 결론: 1. 아브라함이 그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다.

습관적인 죄

1. 우리의 생각이 항상 저기로 고정된다.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죄
2. 영적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3. 다른 죄를 유발한다.
4. 결국 인간을 멸망으로 이끈다.
5. 주로 자기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이다.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
6. 항상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
7. 버리지 않고 늘 정당화한다.

8.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온다.

9. 종류

- a. 성품 관련: 자랑, 게으름, 의심, 완고함, 시기, 질투, 분노, 낙담시키는 말, 항상 으뜸이 되려는 것, 즐거운 것(음식, 경기)만 찾아다니는 것
- b. 중독(약점): 술, 담배, 마약, 도둑질
- c. 습관: 로터리, 노름, 게임
- d. 직업: 세일즈맨 등 거짓말, 좋은 환경 중요, 릿은 소돔과 고모라 선택
- e. 혀의 문제: 거친 말, 고상하지 않은 말
눈의 문제: 포르노, 책
귀의 문제: 음악
몸의 문제: 옷
- f. 말씀 무시/불순종: 음행, 간음, 거짓말, 험담, 가십, 속이기, 컴퓨터, 돈에만 관심
습관적 죄를 버리기 위한 권고

존 맥아더 목사님의 글

- 1. 습관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로 인해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다.
- 2.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라.
- 3.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 인간임을 의식해야 한다. 다윗도 넘어졌다.
- 4. 습관적인 죄가 일어나려고 하면 초장에 제압해야 한다. 누룩이 밀가루 덩어리에 들어오면 곧바로 제거해야지 다 부룬 다음에 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 아이들의 죄도 마찬가지
- 5.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한다(시37:31).
- 6. 죄를 인식했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이다.
- 7.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즉 나를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
- 8.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용하는 관계, 그래서 좋은 교회가 있어야 한다.
- 9. 좋은 부부 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혼의 목적 중 하나

결론

왜 예수님을 믿는가? 죄 문제 해결, 지옥 벗어나기, 하나님과 영원히 삶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단 번에 해결,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위치적으로). 이미 천국 백성 그림에도 이 땅의 우리에게도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한다(현실의 문제, 성화의 문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회계보고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언행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

<https://www.gty.org/library/sermons-library/80-106/dealing-with-habitual-sins>